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요한계시록 14:8~13.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이들은 언젠가 그들의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의로운 행함이 기억될 것이다. (10~15분)

칠판에 쉼이라는 단어를 적고 한 두 학생에게 그들이 학교에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와서 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묘사하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그 쉼을 통해 여러분이 가졌던 느낌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 8~13절을** 읽고 쉼(쉬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표시하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쉼(쉬다)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가? (두 번. 11, 13절 참조)
- 사악한 자들을 위한 쉼이 성도들을 위한 쉼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 성도들이 얻는 쉼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기꺼운 마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앨마서 34장 34~35절과 모사이야서 5장 15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악마에게 “봉인”되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 주님께 “봉인”되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보상을 결정한다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로부터 그들에게 쉼을 가져다주게 될 선택을 하는 것에 도전해 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의 계획을 믿어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외의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온갖 교리에 교란되지 않고, 속이려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서는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 그것은 의심으로부터의 안식, 두려움으로부터의 안식, 위험에 대한 우려로부터의 안식 세상의 종교적인 혼란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여기 저기에서 계속되는 [외침]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복음교리, 53~54쪽)

요한계시록 16장. 자신의 성약을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그분의 심판을 퍼부으실 때 보호될 것이다.(25~30분)

학생들에게 치료법이 없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죽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그 질병이 모든 나라에 동시에 나타나서 일 주일 동안 수백만 명이 죽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그 재앙에서 살아남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고 싶지 않겠는가?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16장을 학습하는 동안 그 질문에 관해 생각해보게 한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요한은 승영에 이른 성도들이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았다.”(유리 바다”, 2절; 또한 교리와 성약 77:1 참조) 그는 또한 각각 재앙이 담긴 대접(그릇)을 들고 있는 다른 일곱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나서 큰 음성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명했다.(요한계시록 16:1) 칠판에 일곱 대접을 그리고 1부터 7까지 번호를 매긴다.(또는 간단하게 칠판에 숫자를 적는다)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16장 2~4, 8~12, 16~21절을** 읽게 하고 각 재앙이 나타내는 바를 말해 보게 한다. 학생들의 생각을 적절한 대접 또는 숫자 아래에 적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을 겪도록 하셨다고 설명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요한은 사람들의 회개 여부를 알려주는 어떤 말을 했는가?(9, 11절 참조)
- 여러분이 만일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했을 것인가?
- 누가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니파이전서 22장 14~19, 28절을 읽고 다음의 질문 모두 또는 일부에 대해 토론한다.

- 주님께서는 누구를 멸망시키실 것인가?
- 왜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인가?
-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보존될 것인가?
- 주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되는 열쇠는 무엇인가?

비록 의로운 이들이 보존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악인들이 고통을 겪는 동안에 성도들이 모든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고 ‘의로운’ 이들도 거의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피하게 될 것인데, 이는 의인은 밑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육신의 약함을 이유로 질병과 역병의 희생자가 될 것이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4:11)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구절에서 보호라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은 무엇인가?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내는 자) 칠판에 두 표현을 두 개의 칸에 머리말로 적는다. 조셉 스미스-마태 1장 37, 46~50절과 모사이야서 4장 30절을 “깨어”의 칸에 적는다. 니파이후서 9장 14절과 교리와 성약 36편 6절, 109편 72~76절을 “자기 옷을 지켜” 칸에 적는다. 반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칸을 하나씩 배정한다. 학생들에게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찾으면서 참조 성구를 찾아보게 한다. 필요에 따라 학생들의 생각을 칠판에 적으면서, 그것들에 대해 토론한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후기에 있을 끔찍한 멸망 중에서도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깨어 있으며 그들의 옷이 깨끗하고 준비되어 있도록 그들이 맷은 성약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바를 믿도록 격려한다.